

발전하는 軍陣醫學 兵士의 生命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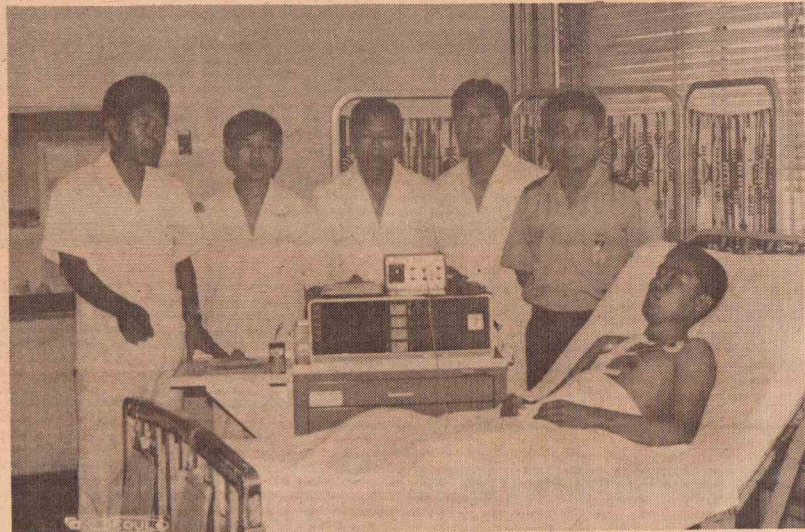
국군수도통합병원 흉곽외과 수술팀 박종만일병의 승모판막폐쇄증 수술

- ... 나날이 발전하는 군진의학이 한 병사의 생명을 ...
- ...구하는 개가를 올렸다. 국군수도통합병원은 승모...
- ...판막폐쇄 부전증으로 고생하던 육군3907부대 박종...
- ...만일병(23·청주)에게 창군이후 최초로 인공승모...
- ...판막대치수술을 성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박일병...
- ...에게 새생명을 주었다. ...

흉곽외과 심장수술팀(김영태 중령, 김용진소령, 장운화소령, 임승평대위, 마취과장 최중립중령)은 지난 5월31일 심폐기를 이용해 좌심방을 절개한후 좌심방과 좌심실사이의 기능이 상실된 승모판막을 제거, 동물의 심낭을 화

울 얻게해 병원당국에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면 나머지 삶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이러한 수술을 시중 일반 병원에서 받게될 경우 1천여만원을 수술비가 드는데 국군수도통합병원측은 이번



◆국군수도통합병원의「창군후 최초로 인공승모판막대치수술」에 성공했다. 창군후 최초로 인공승모판막대치수술을 성공했다.

동물심낭 人工的처리 軍 첫 대치수술 성공 군진의학의 획기적발전 입증

학적으로 처리해 인공적으로 조립한 승모판대용물을 끼워 넣는 승모판막대치수술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흉곽외과 심장수술팀의 노력과 집념으로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은 박일병은 이제 정상인과 같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생명

수술의 성공을 계기로 국군장병들의 심장병 환자에 대한 수술의 자신감과 군진의학에 획기적인 발전을 꾀하게 됐다.

한편 김영태중령은「우리군도 이제 이러한 수술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투력 증강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되었고 새로운 군진의

학을 꾸준히 연구 개발해서 국군장병들이 국토방위수호에 매진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한 호흡곤란과 흉통 및 전신부종의 증상으로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 정밀검사결과「승모판막폐쇄부전증」의 진단을 받은 박일병에게